



제목	Исламская тематика в творчестве турецких поэтов Средневековья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Каза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발행일	2014.
저자	Нигматуллина А.М.
출판도시	Kazan
페이지수	120
ISBN 또는 ISSN	978-5000191767

내용 요약

『중세 터키 시인의 작품에 나타난 이슬람 주제』는 이슬람이 중세 터키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 있다. 13세기~17세기 터키 문학에 관한 연구 논문들과 러시아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있는데, 논문들은 주로 터키 중세 문학 발전사와 형성과정, 작가 소개 및 이 시기의 문학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 그리고 여러 문학 전통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초기 중세 터키 문학(13세기~14세기)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터키(오스만) 문학의 형성기, 즉 14세기~15세기 전반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당대의 문학의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는 터키(오스만) 문학의 최전성기인 15세기~17세기 문학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13세기 이후 터키 문학은 크게 세그룹-상류층의 대중문학, 민중문학, 수피주의 문학-으로 구분된다. 상류층의 대중 문학은 지식인 계층, 상류층이 향유한 것으로, 궁중에서 읽혀졌다. 민중문학은 교육을 받지 않은 평민들을 위한 문학으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구두로 구술된 것이다. 수피주의 문학은 수피교리를 설교하기 위해 또는 수피주의 시인의 세계관을 표현한 문학인데,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한 고도로 정형화된 시문학 장르인 Divan이 대표적이다. 이 Divan의 시들은 메스네비, 가젤, 루바이 등)을 따르고 있다. 문학 장르도 다양해졌는데 13세기~14세기에는 주로 종교·철학 작품과 설교용 작품 등의 산문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그에 반해 극예술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중세 문학의 경향은 새로운 문학 사조가 발생하기 전인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